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과 (나)의 시적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 (라)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의 시적 화자는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유태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이는 아이히만이 학살을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난다. 반면에 (나)의 시적 화자는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비둘기의 변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변한 비둘기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대상에 대해 상반된 공감의 태도를 보이는 (가)의 아이히만과 (나)의 시적 화자에 비해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대해 독특한 공감의 태도를 가진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상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는 뤼카온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아킬레우스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과 아킬레우스가 뤼카온과 같이 언젠가 죽을 운명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완전한 공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유태인의 상태에 공감하지 못했던 아이히만과 달리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점에서 (가)와 (다)의 공감의 태도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비둘기의 감정에 대해 공감한 시적 화자와 달리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킬레우스가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반면 상태에 대해서 공감한 독특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공감을 한 것은 아니다.(959자)